

心包, 三焦, 命門에 대한 연구

송지청 · 권강범 · 이수엽 · 이헌재 · 류도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Shimpo, Samcho and Myoungmoon In Oriental Medicine

Ji Chung Song, Kang Beom Kwon, Su Yeop Lee, Heon Jae Lee, Do Gon Ryu*

Department of Physiolog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pinions about Shimpo[心包:Xinbao], Samcho[三焦:Sanjiao] and Myoungmoon[命門:Mingmen] are controversial from begin of Oriental medicine[東醫學]. In this study I first will focus on each opinion about 3 things above that many doctors had mentioned before and find out the meanings that those doctors had tried to explain. Secondly I will try to consider the meanings of Shimpo Samcho and Myoungmoon themselves. Thirdly I will explain that the relations between Shimpo, Samcho and Myoungmoon by theories of Organs[臟腑] and Meridians[經絡] in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the substantial meanings through those works that I mentioned above. Finally I could have conclusions about Shimpo, Samcho and Myoungmoon. Shimpo is a intermediation between Shim[心:Xin] and Shin[腎:Shen] at the point of Shimshinsanggyo[心腎相交:Xinshenxiangjiao] and Myoungmoon is a intermediation also as same as Shimpo although Shimpo is based on Shim and Myoungmoon is based on Shin. Sanghwa[相火:Xianghuo] is related to Shimpo and Myoungmoon at the view of the naming structure of Meridians. Each Shimpo and Myoungmoon has the meaning of Sanghwa. Samcho is suppose to be tube structure and have a pair with Sanghwa because of its position in the naming structure of Meridians so it contains Sanghwa as a pathway of Sanghwa.

Key words : Shimpo[心包:Xinbao], Samcho[三焦:Sanjiao], Myoungmoon[命門:Mingmen], Oriental medicine[東醫學]

서 론

『黃帝內經』 이후 藏象論과 經絡論이 형성되면서 命門, 心包, 三焦의 의미에 대한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命門은 『黃帝內經』에 그 이름이 수록되어 있으나 의미가 현재와는 좀 달리 目[目]을 지칭하고 있었으며, 『難經』에 와서야 비로소 현대의 의미와 비슷하게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고, 明代 이후 의가들에 의한 폭 넓은 의견과 해석이 뒤따랐다.

心包 또한 『黃帝內經』에서 시작하여 明代 이후 虞搏, 張介賓의 언급까지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三焦는 臟과 腑중에서 腑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의 실제 의미와 실체에 대하여 역대의가들은 有形의 腑, 無形의 腑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命門, 心包, 三焦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相火는 君火의 상대적 의미로 설명되어지지만 『內經』 이후 金元四大醫家에서는 그 의미와 작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보고 되어 있다.

命門, 心包, 三焦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그 자료와 서술이 너무나 다양하고 풍부하며 동시에 그 각기의 의미에 대한 서설명의 다각적인 모습 때문에 항상 존재하게 된다.

또한 三者의 상호간의 연관성은 앞서 말한 문제들을 더욱 가중시킨다. 즉 心包와 三焦는 臟腑적으로는 表裏관계에 있으며, 다른 일면 經絡에 있어서 少陽과 厥陰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命門과 相火, 心包와 相火, 三焦와 命門, 三焦와 相火 등 그 서로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臟腑論과 經絡論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되어지고 있고 命門, 心包, 三焦에 대하여 고찰한 후에 그 의미에 대하여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命門, 心包, 三焦에 대한 各家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三者의 의미에 대한 문제는 여

* 교신저자 : 류도곤,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tkryu@wonkwang.ac.kr, · Tel : 063-850-6846

· 접수 : 2007/03/20 · 채택 : 2007/04/06

타 臟腑와는 달리 그 의견이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다른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命門, 心包, 三焦의 相關關係를 살펴본다.

2. 연구방법과 범위

命門, 心包, 三焦의 의미 문제에 대한 研究方法는 다음과 같다.

첫째, 命門, 心包, 三焦에 대한 역대 문헌을 검토한다. 둘째, 十二經脈의 名稱構造속에서 나타나는 臟腑와 經絡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三者의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셋째, 十二經脈의 명칭구조속에서 나타난 三者의 相互關係를 바탕으로 藏象論과 經絡論의 관점을 통해 命門, 心包, 三焦의 의미를 파악한다.

命門, 心包, 三焦의 의미 문제에 대한 研究範圍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의 범위가 命門, 心包, 三焦의 물리적 실존여부에 관한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有形이든 無形이든 이미 그것이 실존하며 그 실존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의미를 규명하고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있다. 또한 三者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 그 생리적 기능에만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론

1. 命門, 心包, 三焦의 의미에 대한 문헌적 고찰

1) 命門

命門에 관해서 최초의 문헌적 언급은 『黃帝內經』에 있으나 이는 눈을 말하는 것¹⁾으로 본 논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命門과는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

다음에 등장하는 곳이 『難經』인데, 腎 두개는 모두 腎이 아니어서 左는 腎이로, 右는 命門으로 설명²⁾하였고 아울러 두개의 腎중 좌측은 腎이오, 우측은 命門이며, 命門이란 精神이 거거하는 바³⁾라 하였다.

魏晉시대의 王叔和는 『脈經』에서 腎과 命門을 한곳, 尺部에서 진맥을 한다고 주장⁴⁾하였고 隨代의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命門의 氣는 腎間動氣로 五臟六腑가 되고 十二經脈이 되며 性命의 根이 된다⁵⁾고 하였다.

宋代이후 明代까지 특히 金元時代엔 命門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王好古는 『此事難知』에서 五臟을 설명하고 겸하여 包絡이 더 있으니 이를 命門⁶⁾으로 간주하였고, 劉河間은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命門은 小心⁷⁾이라고 하였으며 左腎이 命門이 아니라 右腎이 命門火⁸⁾라고 하였다. 張元素도 『病機氣宜保命集』에서

七節의 옆에 小心이 있는데 이 小心이 命門相火⁹⁾라고 하였으며, 李東垣은 『蘭室秘藏』에서 右腎은 命門과 동시에 赤宮, 丹田이다¹⁰⁾라고 하였다. 滑壽는 『難經本義』에서 腎은 두개인데 右는 命門相火이며, 左는 腎水인데 同質이지만 다른 일을 한다¹¹⁾하였고, 孫一奎는 『醫旨緒餘』에서 兩腎은 모두 水이고 兩腎가운데 火는 坎卦중의 陽을 의미하는 것이지 火가 아니다¹²⁾라고 하였다. 虞搏은 또한 『醫學正傳』에서 兩腎은 모두 命門이며, 그 위치는 命門穴이다¹³⁾고 하였다.

『本草綱目』의 저자 李時珍은 命門은 相火의 근원이고 三焦는 相火의 用이다¹⁴⁾라 하였다. 張景岳는 『景岳全書』에서 좌측의 尺脈이 虛弱 혹은 細數한 것은 左腎의 眞陰不足으로 생기니 六味丸을 사용할 것이오 우측의 尺脈이 遲緩혹은 浸細하면 이는 命門의 相火不足으로 생기니 八味丸을 사용할 것이다¹⁵⁾라고 하여 命門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그에 따른 用藥을 언급하였고, 命門은 原氣의 근원이오, 水火의 宅으로 五臟의 陰氣가 이것이 아니면 젖어들지 못하고 五臟의 陽氣는 이것이 아니면 발휘되지 못하다¹⁶⁾고 하여 水火의 變化주체임을 설명하였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心包와 命門은 동일하다¹⁷⁾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李中梓는 『醫宗必讀』에서 命門은 兩腎사이 에 있으며 坎卦의 象¹⁸⁾이라고 했다. 趙獻可는 『醫貫』에서 命門은 小心이며 水火의 根은 腎間動氣이다¹⁹⁾고 하였고, 陳士澤은 『石室秘錄』에서 命門이란 先天之火이며 無形으로서 水中에 居한다. 有形의 火는 水가 克하지만 無形의 火는 水가 生한다²⁰⁾하여 水火의 관계적 측면에서 命門을 설명하였다.

清代에 들어와서도 命門에 대한 說은 계속 등장한다.

徐靈胎는 자신의 의서에서 命門은 原氣의 根本이며 水中의 火²¹⁾라는 주장을 폈고, 唐宗海는 『血證論』에서 油膜이 命門으로 三焦의 根源이다²²⁾라는 주장을 했다.

9) 張元素 『病機氣宜保命集』 “七節之傍 有小心 是言命門相火也” 「中國醫學大系 卷13」, 서울 1995년 15p

10) 李東垣 『蘭室秘藏』 “右腎即命門, 夫胞者 一名赤宮 一名丹田 一名命門” 「中醫古籍出版社」, 북경 1987년 119p

11) 滑壽 『難經本義』 “腎有兩枚, 右爲命門相火, 左爲腎水, 同質而異事也” 「中國醫學大系 卷1」, 서울 1995년 482p.

12) 孫一奎 『醫旨緒餘』 “兩腎即水 兩腎中火即坎中之陽 非火” 「中國醫學大系 卷34」, 서울 1995년 1083p.

13) 虞搏 『醫學正傳』 “兩腎總號命門 兩腎之間命門穴” 「成輔社」, 서울 1986년, 7p.

14) 李時珍 『本草綱目』 “命門爲相火之原 (중략) 三焦爲相火之用” 「人民衛生出版社」, 상해 1991년, 57p.

15) 張景岳 『景岳全書』 “若左尺脈虛弱或細數是左腎之眞陰不足也, 用六味丸; 右尺脈遲軟或沈細而數欲絕是命門之相火不足也, 用八味丸” 「경희대출판국」, 서울 1993년, 382p.

16) 張景岳 위의 책 “命門爲元氣之根, 爲水火之宅, 五臟之陰氣非此不能滋, 五臟之陽氣非此不能發” 23p.

17) 李梴 『醫學入門』 “心包即命門” 「高麗醫學」, 서울 1978년, 91p.

18) 李中梓 『醫宗必讀』 “兩腎中間命門 坎卦之象” 「書苑堂發行」, 서울 1987년, 23p.

19) 趙獻可 『醫貫』 “七節之傍 有小心 名曰命門 (중략) 命門君主之火 乃水中之火 相依而永不相離也” 「人民衛生出版社」, 상해 1987년, 4p.

20) 陳士澤 『石室秘錄』 “命門者 先天之火 此火無形而居于水之中 天下有形之火 水之所克 無形之火 水之所生 (하략)” 「中國中醫藥出版社」, 북경 2005년, 395p.

21) 徐大椿 『徐靈胎醫書三十六種』 “命門爲元氣之根 眞火之宅 水中之火” 「江蘇科學技術出版社」 소주 1983년, 189p.

22) 唐宗海 『血證論』 “油膜即命門 三焦之源” 「上海人民出版社」, 상해 1996년, 12p.

1) 『黃帝內經靈樞』 “太陽根于至陰 結于命門 命門者 目也” 「臺聯國風出版社」, 타이페이 1977년, 59p.

2) 『難經』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人民衛生出版社」, 상해 1991년, 67p.

3) 위의 책 “腎有兩藏也 其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精神之所舍也” 71p.

4) 王叔和 『脈經』 “腎與命門, 俱出尺部” 「東洋醫學善本叢書 第7冊」, 서울 1981년, 5p.

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命門之氣 及是腎間動氣 爲五臟六腑 十二經脈 性命之根” 「東洋醫學善本叢書 第1冊」, 서울 1981년, 414p.

6) 王好古 『此事難知』 “問臟腑有幾 答曰 肝心脾肺腎 兼包絡 一名命門” 「中國醫學大系 卷13」, 서울 1995년, 577p.

7)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命門者 小心也” 「中國醫學大系 卷12」, 서울 1995년 729p.

8) 위의 책 “左腎爲命門者, 誤也... (중략)... 右腎火氣” 729p.

韓國에서는 李圭峻이 자신의 책 『素問大要』에서 命門은 心包이며 膻中부위이다²³⁾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命門에 관한 문헌들을 통한 命門說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左腎右命門說 : 『黃帝內經』에서 命門은 目を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難經』에 이르러서야 左는 腎이오 右는 命門이며, 命門이란 精神이 깃든 바라고 함으로써 命門說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命門을 右腎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劉河間, 張元素, 李東垣, 朱丹溪 등 金元四大醫家들이나 滑壽의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2) 兩腎皆命門說 : 孫一奎, 虞搏 등의 주장으로 앞의 說을 否認하고 兩腎을 모두 命門이라고 하였다.

(3) 命門于兩腎之間說 : 이는 明代의 命門學說의 主流을 이루는 것으로 張景岳이 대표적이며, 趙獻可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그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4) 命門卽心包說 : 李圭峻의 주장인데, 王好古와 李梴도 命門과 心包를 동일시 하였다.

2) 心包

心包에 대한 문헌적 자료도 역시 『黃帝內經』으로부터 시작된다. <靈樞>에 心包의 脈이 胸中에서 기시하여 心包에 絡하며 膈을 지나 三焦에 絡한다²⁴⁾고 하였고, 心이란 五臟六腑의 大主로서 精神이 깃들여 있다. 그 臟은 견고하여 사기가 용납되지 않으니 들어오면 心이 상하고 心이 상하면 神이 없어지고 神이 없어지면 죽게되므로 사기가 心에 있다는 것은 心包에 있다는 것이니 心包는 心柱의 脈이다²⁵⁾라고 하여 心에 邪氣가 들면 心包가 대신한다고 하였다. 또한 <靈蘭秘典論>에서 五臟六腑에 관해 당시 직능을 비유하여 설명하면서도 心包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다만 膻中은 臣使之 官能을 가지고 있고 喜樂이 나온다²⁶⁾고 하여 明문 설명을 대신하였다. <血氣形志篇>에서는 少陽과 心主는 표기가 된다²⁷⁾고 하였다.

『難經』에서는 經脈은 열 두 개인데 五臟六腑는 열 한 개이니 그 나머지 한 經脈은 少陽과 더불어 있는 心主의 別脈으로 心主와 三焦는 表裏가 되며 이름은 있으나 無形이다. 이로써 열 두 개가 된다²⁸⁾고 설명하였다.

孫一奎는 『醫旨緒餘』에서 心包란 심을 둘러싸고 있는 脂膜이고 心臟과 불리될 수 없다²⁹⁾고 하였고, 張元素는 『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서 心은 神을 간직하고 君火이며 心包는 相火

다³⁰⁾라고 주장하였다. 趙獻可는 『醫貫』에서 心의 아래에 心包가 있는데 膻中이며 그 모양은 사발을 얹어 놓은 것이며 神이 그 가운데 기거 한다³¹⁾고 기술했다. 張介賓은 『類經』에서 心包는 君火를 둘러싸 보호하는 것이다³²⁾라고 하였으며 君火는 明으로 相火는 位로 설명되는데 手厥陰은 君火를 대신하여 행사하고 用으로 말하는 것이며, 心包는 經絡으로써 말하면 心包絡인데 이처럼 한 개의 經脈이지만 이름은 둘이게 되나 이도 실은 相火이다³³⁾고 하였다. 虞搏은 『醫學正傳』에서 心包는 心을 둘러 싸고 있고 心火를 안고 있으므로 心包絡이며 三焦와 連繫되어 있다³⁴⁾고 보았다.

清代의 唐宗海도 역시 그의 저서 『血證論』에서 心包는 心 君火를 둘러싸는 것으로 心包는 臣이 되니 心이 君火가 되는 것이다. 包絡은 相火라 칭하고 心經과 더불어 火작용을 하니 心의 역할은 心包가 대신하며 치료도 心에 준한다³⁵⁾고 하였다. 한편 程知는 『醫經理解』에서 心包가 子宮, 子戶라고 주장³⁶⁾하였다.

위와 같은 心包에 관한 문헌적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心包卽膻中說 : 『黃帝內經』 <靈蘭秘典論>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광의로 보면 心包卽裹心之膜說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으나 국소적 부위를 지칭하기에 따로 분류된다. 후대 趙獻可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心包卽裹心之膜說 : 명대 孫一奎와 張介賓, 그리고 虞搏의 주장으로, 清代 唐宗海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3) 心包卽子戶說 : 清代 程知의 주장으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裹心之膜說은 그 유래도 불분명하여 정확하지 않고 도리어 包胎의 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心包는 心臟과의 비교설명으로 君火 대 相火의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다.

3) 三焦

三焦에 관해서 『黃帝內經』의 <靈蘭秘典論>에서는 三焦는 決瀆의 관능을 가지고 水道가 나온다³⁷⁾고 하여 水液代謝와 연관하여 설명하였고, <本輸>에서는 三焦가 少陽과 습한다³⁸⁾고 하였으며 같은 편에서 腎은 膀胱과 습하는데 膀胱이라는 것은 津液의 腑이고 少陽은 腎에 屬하고 腎은 위로 肺와 연관하므로 두개씩 있고 三焦는 中瀆의 腑이며 水道가 나오고 膀胱에 屬하니 肅

23) 李圭峻 『素問大要』 “命門者心包絡也 其位膻中” 「密陽琴川新刊」, 밀양 1906년, 240p.

24) 『黃帝內經靈樞』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起于胸中 出屬心包絡 下膈 歷絡三焦” 「臺聯國風出版社」, 타이페이 1977년, 126p.

25) 위의 책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494p.

26) 『黃帝內經素問』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 「臺聯國風出版社」, 타이페이 1997년, 77p.

27) 위의 책 “少陽與心主爲表裏” 「臺聯國風出版社」, 타이페이 1997년, 212p.

28) 『難經』 “有十二經 五臟六腑十一耳 其一經者 何等經也 然 一經者 少陰與心主別脈也 心主與三焦爲表裏 俱有名而無形 故言經有十二也” 「人民衛生出版社」, 상해 1991년, 52p.

29) 孫一奎 『醫旨緒餘』 “心包絡乃心包之脂膜 實不離乎心也 (中略) 以其質無特形 是故不得爲特臟也” 「中國醫學大系 卷34」, 서울 1995년 1086p.

30) 張元素 『臟腑虛實標本用藥式』 “心臟神爲君火 心包絡爲相火” 「中醫古籍出版社」, 북경 1994년, 3p.

31) 趙獻可 『醫貫』 “心之下有心包絡 即膻中也 象如仰孟 神卽居其中” 「人民衛生出版社」, 상해 1987년, 4p.

32) 張景岳 『類經』 “心包絡 包心之膜絡也 包絡爲心主之外衛” 「中國醫學大系 卷44」, 서울 1995년, 119p.

33) 위의 책 “又曰心包絡何也 曰 君火以明 相火以位 手厥陰代君火行事 以用而言 故曰手心主 以經而言 則曰心包絡 一經而二名 實相火也” 119p.

34) 虞搏 『醫學正傳』 “其心包絡 實乃裹心之膜也 包于心火 故曰心包絡 其系與三焦之系連屬” 「成輔社」, 서울 1986년, 6p.

35) 唐宗海 『血證論』 “包絡者 心之外衛 心爲君主之官 包絡卽爲臣 故心稱君火 包絡稱相火 相心經宣布火化 凡心之能事 皆包絡爲之 見證治法 亦如心臟” 「上海人民出版社」, 상해 1996년, 8p.

36) 程知 『醫經理解』 “以心包絡爲裹心外膜 千古憤憤 不可不以經文考正也 夫包者 包胎之名 卽 子戶也” 「安徽科學技術出版社」, 안휘 1995년, 495p.

37) 『黃帝內經素問』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臺聯國風出版社」, 타이페이 1977년, 78p.

38) 『黃帝內經靈樞』 “三焦者, 上合手少陽” 「臺聯國風出版社」, 타이페이 1977년, 22p.

로 하는 腑이다³⁹⁾라고 하였다.

『難經』에서는 三焦는 心包와 表裏關係가 되고 모두 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어서 十二經脈을 이룬다⁴⁰⁾고 하였으며 臟腑 중 臟은 다섯 개인데 腑는 여섯 개인 것은 三焦가 있어서이고 三焦는 原氣의 別使로 모든 氣를 주관하며 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고 경락은 手少陽에 속는 腑이다⁴¹⁾라고 하였다. 華佗 『中藏經』에서는 三焦는 人身의 三元의 氣로서 五臟六腑와 榮衛經絡, 그리고 內外上下의 氣를 주관한다⁴²⁾고 하였다.

元代 王好古는 『此事難知』에서 肝心脾肺腎 五臟과 더불어 心包는 命門으로 합하여 六臟이되고 膽小腸胃大腸膀胱과 三焦는 六腑가 되어 합하면 十二가 된다⁴³⁾고 하였다. 虞搏은 『醫學正傳』에서 人身의 相火가 또한 腔子の 內와 蕘격막의 아래 위 사이를 다니니 이름하여 三焦라 하고 또한 五臟六腑에 합하며, 三焦라는 것은 그 腔子를 가리켜 말함이니 腸胃의 일을 총괄하여 말으며, 胸중의 蕘격막 위를 上焦라 하고 蕘격막의 아래 배꼽위를 中焦라 하고 배꼽의 아래를 下焦라 하니 합칭 三焦라 하며, 그 실체는 腔子の 內에 있고 六臟五腑의 밖을 포괄한다⁴⁴⁾고 하였다. 孫一奎는 『醫旨緒餘』에서 『靈樞經』에 三焦는 腎과 膀胱에 속하고 膀胱에 붙어있다고 말하나 이는 三焦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形體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⁴⁵⁾고 하여 無形의 腑임을 주장하였으며,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上焦는 心下에서 脣의 上口에 해당이 되며 그 치료는 膻中에 있고 中焦는 胃脘부위며 그 치료는 배꼽양쪽에 있으며 下焦는 배꼽아래에서 膀胱 윗부분까지이며 그 치료는 배꼽아래 1寸에 있다⁴⁶⁾고 하여 三焦의 각 부위와 치료부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三焦는 각각 霧, 瀆, 瀆의 작용을 하는데, 비록 이름은 있으나 형태는 없고 각각 기와 음식과 변을 처리하여 비록 이름은 없으나 쓰임은 있다⁴⁷⁾고 하였다. 虞搏은 『醫學正傳』에서 五[五臟]외에 또한 相火가 있어서 天地上下의 氣가 交流하는 중에

있어서 고로 합하여 五運六氣라 하며, 인신의 相火는 腔子の 안과 蕘격막 상하의 사이에 다니니 이름하여 三焦라 하고 또한 합하여 五臟六腑라 한다⁴⁸⁾고 하였으며, 張景岳은 『類經』에서 三焦는 中瀆의 腑이고 膀胱은 津液의 腑인데 腎은 水를 저장하고 水와 관련된 腑를 다스리니 腎은 두 腑를 아울러 다스리게 되므로 『黃帝內經』 <本藏篇>에서 腎은 三焦와 膀胱과 합한다는 말이 이 말이다⁴⁹⁾라고 하였다. 또한 軀體의 內와 臟腑의 外가 곧 三焦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⁵⁰⁾고 하였다.

清代의 唐宗海는 『血證論』에서 油膜이 命門이며 三焦의 根源이다⁵¹⁾고 하였다.

三焦에 관한 문헌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三焦는 心包와 相關關係를 갖는다. 表裏關係이거나 부위를 나타내는 설명으로 『難經』의 내용이나 虞搏의 주장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三焦는 腑이다. 有, 無形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三焦가 腑이라는 의견이다. 셋째, 三焦는 氣의 循行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 原氣의 別使, 主行氣 등의 설명과 相火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넷째, 三焦는 水穀의 代謝過程에 역할을 담당한다. 李梴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三焦는 ‘無形而有用이다’라는 주장과 ‘有形이다’라는 주장이 혼재한다. 『難經』, 『中藏經』, 孫一奎, 李梴의 說 등이 전자에 해당되며 虞搏, 張景岳, 唐宗海 등의 說이 후자에 해당된다.

4) 相火

相火에 대한 언급도 『黃帝內經素問』에서 비롯되는데 君火는 命이오 相火는 位⁵²⁾라는 待對關係에 관한 기술에 국한되며 나머지는 運氣七篇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후대 의가들 중에 李東垣은 『脾胃論』에서 相火는 下焦 包絡의 火로 元氣의 賊이다⁵³⁾라고 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朱丹溪는 『格致餘論』에서 相火는 쉽게 일어나니 위로 煽動되면 妄動하게 되는데 火가 일어나 妄動되면 變化가 막착하여 시도때도 없이 眞陰을 고갈시키고 陰虛가 되면 病이되고 眞陰이 끊기면 죽게되는 고로 相火는 元氣之賊이다⁵⁴⁾고 하였다. 孫一奎는 『醫旨緒餘』에서 腎間動氣라는 것은 사람의 生命이오, 五臟六腑의 根本이오, 十二經脈의 根幹이오, 呼吸의 門이오, 三焦의 根源이니 命門의 뜻이 여기에 둔 것이다⁵⁵⁾라고 하였다.

39) 위의 책 『腎合膀胱 膀胱者 津液之府也 少陽屬腎 腎上連肺 故將兩藏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29p.
 40) 『難經』, “心主與三焦爲表裏 俱有名而無形 故言經有十二也” 「人民衛生出版社」, 상해 1991년, 52p.
 41) 위의 책 『藏唯有五 府獨有六者 何也 然 所以府有六者 謂三焦也 有原氣之別焉 主持諸氣 有名而無形 其經屬手少陽 此外府也 故言府有六焉」 「人民衛生出版社」, 상해 1991년, 71p.
 42) 華佗 『中藏經』, “三焦者 人之三元之氣也 號曰中瀆之腑 總領五臟六腑 榮衛經絡 內外左右上下之氣也” 「自由出版社印行」, 타이페이 1990년, 27p.
 43) 王好古 『此事難知』, “問臟腑有幾 答曰 肝心脾肺腎 兼包絡 一名命門 爲六藏 膽小腸胃大腸膀胱兼三焦 爲六腑 計之十二矣” 「中國醫學大系 卷13」, 서울 1995년, 577p.
 44) 虞搏 『醫學正傳』, “人身之相火 亦游行于腔子之內 上下盲膜之間 命名三焦 亦合于五臟六腑 (중략) 三焦者指腔子而言 包函乎腸胃之總司也 胸中盲膜之上 曰上焦 盲膜之下 膈之上 曰中焦 膈之下 曰下焦 總名曰三焦 其可謂之無攸受乎 其體有脂膜在腔子之內 包羅乎六臟五腑之外也” 「成輔社」, 서울 1986년, 6p.
 45) 孫一奎 『醫旨緒餘』, “合二篇(靈樞經 本藏篇, 本輸篇)觀之 三焦屬腎與膀胱 故附膀胱以言 非爲三焦有物如是也 (中略) 有形之說 不必辨而其謬自明矣” 「中國醫學大系 卷34」, 서울 1995년 1089p.
 46) 李梴 『醫學入門』, “腑有六者 謂三焦爲外腑也 上焦者 在心下胃上口 主內而不出 其治在膻中 中焦者 在胃中脘不上不下 主腐熟水穀 其治在臍兩傍 下焦者 在臍下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出而不內以傳道也 其治在臍下一寸 故曰三焦 是腑之所以有六也” 「高麗醫學」, 서울 1978년, 92p.
 47) 위의 책 『三焦 如霧 如瀆 雖有名而無形 主氣 主食 主便 雖無形而有用』 92p.

48) 虞搏 『醫學正傳』, “五者之外 又有相火游行于天地上下氣交之中 故合爲五運六氣 人身之相火 亦游行于腔子之內 上下盲膜之間 命名三焦 亦合于五臟六腑” 「成輔社」, 서울 1986년, 6p.
 49) 張景岳 『類經』, “然三焦爲中瀆之府 膀胱爲津液之府 腎以水藏而領水府理之當然 故腎得兼將兩藏 將 領也 兩藏 府亦可以言藏也 本藏篇曰 腎合三焦膀胱 其義即此” 「中國醫學大系 卷44」, 서울 1995년, 23p.
 50) 위의 책 『三焦者 (중략) 蓋即藏府之外 軀體之內 包羅諸藏』 23p.
 51) 唐宗海 『血證論』, “按兩腎中一條油膜 爲命門 即是三焦之原” 「上海人民出版社」, 상해 1996년, 12p.
 52) 『黃帝內經素問』, “君火以命, 相火以位” 「臺灣國風出版社」, 타이페이 1977년, 496p.
 53) 李東垣 『脾胃論』,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中國醫學大系 卷13」, 서울 1995년, 422p.
 54) 朱丹溪 『格致餘論』, “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 上扇則妄動矣 火起於妄 變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絕則死 (중략) 故曰 相火 元氣之賊” 「中國醫學大系 卷14」, 서울 1995년, 667p.
 55) 孫一奎 『醫旨緒餘』, “腎間動氣者 人之生命 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命門之義 蓋本於此” 「中國醫學大系 卷34」, 서울 1995년, 1083-1084p.

張景岳은 자신이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살펴보니 의 高見에 불복하지 않을수 없으나 점차 반신반의하게 되고 의혹이 끊이질 않다가 비로소 그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즉 陰이 不足 陽이 有餘한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었다⁵⁶⁾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趙獻可는 그의 저서 『醫貫』에서 相火란 龍雷之火로 肝腎사이 에 붙어 있는 水中의 火⁵⁷⁾라고 했다.

이외에도 相火에 대한 문헌은 다양해서 앞서 命門, 心包, 三焦에 대한 문헌적 고찰시 살펴보았던 각가의 주장에도 相火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큰 범주로 정리하자면 相火는 인체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생리적 측면의 相火개념과 인체에서 발현되는 火현상의 병리적 측면의 相火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서론에서 밝혔듯이 생리적 의미의 相火에 대해서만 중심을 두기로 한다.

2. 十二經脈의 名稱構造와 臟腑, 經脈의 관계에 대한 연구

1) 十二經脈의 名稱構造

十二經脈의 명칭을 살펴보면 手足의 上下와 風寒暑濕燥火를 의미하는 六氣의 개념이 포함된 三陰三陽, 및 木火土金水를 의미하는 五運의 개념이 포함된 五臟五腑 그리고 心包, 三焦가 臟과 腑로서 구성되어 있다. (表 1)

表 1. 十二經脈의 名稱構造

手太陰肺經	手少陰心經	手厥陰心包經
手陽明大腸經	手太陽少陽經	手少陽三焦經
足陽明胃經	足太陽膀胱經	足少陽膽經
足太陰脾經	足少陰腎經	足厥陰肝經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첫째 太陰과 陽明이 한 짝으로, 少陰과 太陽이 다른 한 짝으로, 厥陰과 少陽이 다른 마지막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이 三陰三陽이 臟腑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는 앞으로 살펴볼 心包와 三焦가 少陽과 厥陰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양자간에는 臟腑의 表裏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부가적으로 少陽과 厥陰의 관계를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標本中氣를 파악해야 한다.

標本中氣論이란 風寒熱濕燥火의 本과 三陰三陽이 標가 되고 그 속에 中氣가 있다는 것이다. 本氣인 風, 寒, 熱, 濕, 燥, 火氣는 차례로 標氣인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中氣로 少陽, 太陽, 陽明, 厥陰, 太陰, 少陰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表 2.

本氣	風氣	熱氣	濕氣	火氣	燥氣	寒氣
標氣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中氣	少陽	太陽	陽明	厥陰	太陰	少陰

56) 張景岳 『景岳全書』 “予自初年 嘗讀朱丹溪陽有餘陰不足論 未嘗不服其 高見 自吾漸立以來 則疑信相半矣 又自不惑以來 則始知其大謬矣 (중략) 非陰常不足, 陽常有餘之明驗乎” 『경희대학교출판국』, 서울 1993년, 21p.

57) 趙獻可 『醫貫』 “相火 龍雷之火 寄于肝腎之間 是水中之火” 『人民衛生出版社』, 상해 1987년, 16p.

標本中氣論의 핵심은 本氣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은 標氣와 中氣의 관계처럼 상호 조절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心包와 三焦는 어떤 측면에서라도 상호 조절과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臟腑와 經絡의 關係

肝, 心, 脾, 肺, 腎과 膽, 小腸, 胃, 大腸, 膀胱의 臟腑와 手足三陰三陽의 經絡과의 관계는 三陰三陽과 五行의 결합에서 시작한다. 즉, 厥陰風은 그 성질로 木과 少陰熱은 火와 太陰濕은 土와 少陽相火는 火와 陽明燥는 金과 太陽寒은 水와 연결되어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가 된다.

이러한 三陰三陽과 五行의 결합을 바탕으로 三陰三陽의 臟腑와의 관계를 보면, 厥陰風木은 木臟腑인 肝臟 · 膽腑와 少陰君火는 火臟腑인 心臟 · 小腸腑와 太陰濕土는 土臟腑인 脾臟 · 胃腑와 陽明燥金은 肺臟 · 大腸腑와 太陽寒水는 腎臟 · 膀胱腑와 연결되어 있다. 다만 少陽相火 그 짝을 찾을 수 없으나 앞서 五臟五腑의 관계들을 미루어 보면 相火와 관련된 臟腑와 짝을 이룰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아직 명확하게 그 연결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하더라도 心包 그리고 三焦가 그 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만은 추론할 수 있다. 즉 少陽相火는 心包臟 · 三焦腑와 연결되는 것이다.

(1) 標本中氣論

앞서 <表 1>의 十二經脈 명칭을 관찰하여 보면, 手陽明大腸經과 足太陰脾經은 陽明燥金과 大腸金이 太陰濕土와 脾土가 서로 자신의 金屬性和 土屬性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手太陰肺經과 足陽明胃經은 太陰濕土와 肺金이 陽明燥金과 胃土가 연결되어 서로 자신의 속성이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經絡體系의 太陰濕土와 陽明燥金이 標本中氣論上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對待關係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臟腑體系와 經絡體系가 太陰肺, 陽明胃처럼 상호 엮갈려 짝을 이룸으로서 臟腑體系와 經絡體系가 상호 교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에 있어서도 이와 같아 經絡體系인 少陰君火와 太陽寒水는 寒熱로서, 臟腑體系로서 水火의 臟腑인 心 · 小腸 · 膀胱 · 腎과 교류하고 있다.

(2) 經絡體系와 臟腑體系의 相互感應

앞의 내용을 통해서 臟腑體系와 經絡體系가 서로 감응함, 즉 臟腑와 經絡의 교류를 알아보았는데, 形으로 대표되어지며 5의 숫자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五行의 臟腑體系와 氣로서 대표되어지며 6의 숫자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三陰三陽의 經絡體系간의 상호 감응은 그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五臟五腑는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와 連結되어지지만 五臟五腑와 연결될 수 없는 少陽相火는 그 짝으로 臟腑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少陽相火가 太陰濕土와 陽明燥金, 少陰君火와 太陽寒水の 관계처럼 厥陰風木과 한 짝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少陽相火의 相火 자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表 1>에서 본 것과 같이 十二經脈의 名稱構造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少陽相火와 心包臟 · 三焦腑와 관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 또한 心包, 三焦를 포함 相火의 내용을 파악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 단서들은 命門, 心包, 三焦의 내용 문제를 해결하

는데 아주 중요하며 이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주 논점이 된다.

이로써 보면 十二經脈의名稱構造와 臟腑와의 相關關係는 標本中氣論을 바탕으로 三陰三陽이 간간이 되고, 여기에 六氣를 가지고 五行屬性을 결부시켜 臟腑와 함께 6가지 종류의 명칭을 만들고, 이를 다시 上下의 위치로 手足을 나누어 명칭을 형성하고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단 그 과정에서 心包와 三焦의 문제와 少陽相火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3. 臟腑論의 觀點에서의 命門, 心包, 三焦, 相火에 관한 연구

1) 命門과 心包

命門의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문헌상의 주장들처럼 의견이 다양하다. 그러나 각각의 주장만으로는 命門을 다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또한 위 주장들의 나열들의 승으로는 命門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은 命門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면서 卦象을 가지고 命門을 설명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이 방식에 따르면 腎이라는 것은 坎卦의 밖에 위치한 두 陰爻에 해당이 되며 命門은 坎卦의 가운데 위치한 陽爻와 같다는 것인데 이는 命門의 형식과 그 기능에 대한 견해로 命門의 기능이 腎이라는 水의 성질을 가진 臟에 기반을 하면서도 그 作用은 그 반대의 성질, 즉 火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命門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水火相濟, 心腎相交로 腎과 對待關係에 있는 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시 말하면 腎水에게 있어서 命門의 火가 언급되어 진다면, 心火에게 있어서 水의 성질을 가진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心은 離卦의 밖에 위치한 두 陽爻에 해당이 되고 離卦의 가운데 위치한 陰爻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離卦중의 陰爻에 해당되는 부분은 心火[離 =]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水의 성질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心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면 心包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心包가 離卦중의 陰爻적 성질, 즉 心火를 바탕으로 한 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부각된다.

心包에 대한 문헌적 說明은 주로 心臟을 둘러싸고 있는 膜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說明은 바로 孫一奎와 張介賓, 그리고 虞搏과 清代 唐宗海 등의 주장으로 心臟은 一身의 君主로써 疾病에 대해 직접 대항하지 않고 둘러싸고 있는 心包가 心臟을 대신 한다는 주장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離卦중의 陰爻적 성질을 가진 무엇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心包라는 名稱은 『黃帝內經』에서 心包라고 쓰여 있기보다 주로 心包絡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유사한 용어로 胞脈이라는 名稱이 등장한다. 『黃帝內經』<評熱論>에서 胞脈이라는 것은 心에 속하고 胞中에 絡하는 것⁵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心包絡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心包的 어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心包的 心은 屬心하는 의미에서 心이며, 包는 絡於胞中하는 의미에서 包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앞의 문헌적 고찰에서 清代 程知가 『醫經理解』에서 주장한 것과 같으며, 이로써 心包라는 것이 心臟과의 關係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설명되어진다. 다시 말해 心包는 心臟을 바탕으로 하여 胞中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心火를 바탕으로 하여 水性을 갖는 실체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또한 命門도 命과 門의 의미로 구별될 수 있다. 즉 목숨을 의미하는 命은 火의 성질로 心을 상징하고 있으며 門은 水의 성질로 胞門, 子戶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命門과 心包는 각자 腎과 心을 바탕으로 하여 心과 腎을 연락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관념적으로만 언급하였던 水火相濟, 心腎相交의 실질적인 매개체가 되어 心包와 命門이 對待關係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命門과 心包的 關係를 통한 相火

命門과 心包를 水火相濟의 매개체라고 하였는데, 이를 心腎의 水火相濟라는 틀에서 살펴보면 命門과 心包라는 것이 각자의 자신의 기반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며, 그것의 위치에 따른 명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성질상 命門이 心包요, 心包가 命門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三焦라는 것이 위에 있을 때에는 上焦라는 이름으로, 中에 있을 때는 中焦라는 이름으로, 下에 있을 때는 下焦라는 이름으로 불리듯이, 命門과 心包 또한 上下의 위치에 따른 이름이며 양자는 성질상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헌 중에서 李梴이 자신의 著書 『醫學入門』에서 주장한 心包가 命門이다⁵⁹⁾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心包는 臟으로 三焦와 臟腑表裏의 關係에 있는데, 그 앞의 臟腑와 三陰三陽의 關係처럼 心包, 三焦, 肝 그리고 膽은 厥陰經과 少陽經 즉 厥陰風木과 少陽相火와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더불어 각 臟腑는 厥陰風木과 少陽相火 하나씩 섞여 十二經脈의 명칭을 완성하게 되므로 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肝은 木臟으로 厥陰風木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膽은 木腑이나 少陽相火와 엮갈려 있다. 그러면 心包와 三焦도 마찬가지로 厥陰風木과 少陽相火와 하나는 本氣인 제 기운을 따르고 나머지는 標氣인 다른 기운을 따른다는 의미인데, 그 다른 기운은 厥陰風木이니 제 기운은 바로 少陽相火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心包와 三焦는 相火의 기운이 흐른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바로 肝과 膽이 風木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相火는 당연히 心包와 三焦에 歸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心包와 命門은 相火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相火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견해도 역시 命門과 心包에 대한 견해만큼이나 다양하다. 相火를 六氣에서는 少陽相火로 칭하기도 하고 또, 心臟君火에 相對해서 命門相火라 칭하기도 하며, 心包相火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相火는 命門과 心包 모두에게 關聯되는 것으로, 命門이나 心包가 성질상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命門相火나 心包相火는 결국 相火의 하위개념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命門과 心包는, 三焦가 나뉘면 上,中,下焦가 되나 합치면 焦 하나로 귀속되듯이, 上下에 위치만 달리 할 뿐 실질적으로

58) 『黃帝內經素問』“胞脈者 屬心而絡於胞中” 『臺聯國風出版社』, 타이페이 1977년, 271p.

59) 李梴 『醫學入門』“心包卽命門” 『高麗醫學』, 서울 1978년, 91p.

는 相火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十二經脈의 名稱에서 手足太陰經과 手足陽明經은 標本中氣論상 本人 燥·濕의 관계를 가지고 標인 太陰과 陽明이 짝하고 있고, 手足少陰과 手足太陽은 本人 寒·熱[水火]의 관계를 가지고 標인 少陰과 太陽이 짝하고 있으며, 手足厥陰과 手足少陽은 本人 風·相火의 관계를 가지고 標인 厥陰과 少陽이 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燥와 濕, 寒과 熱은 兩者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태변화 즉, 상호 전화가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운의 다소에 따른 象의 변화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燥와 濕은 바람에 의해 상호전환된다. 실제로 바람이 많은 지중해성 기후는 온도가 높건 낮건 습도가 낮고 건조한 기후를 갖는다. 그러나 바람이 적은 열대기후나 냉대기후는 온도와 상관없이 多濕하다. 이처럼 燥와 濕을 상태변화시키는 것은 바람[風]이다. 寒과 熱의 상호전환은 더 쉽게 파악된다. 태양[火]의 작용을 보면 그러하다. 결국 寒과 熱을 상태변화시키는 것은 火이다. 즉, 燥와 濕은 風의 有無, 寒과 熱은 相火의 有無에 의해 전환된다는 말이다. 인체내 생리현상으로 살펴보면, 陽明燥金과 太陰濕土 그리고 太陽寒水와 少陰君火는 결국 前者는 厥陰風木의 작용에 의해서 後者는 少陽相火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형체적 관점인 臟腑에서 脾胃土가 자신의 土의 성질을 가지고 나머지 四臟에 관여하듯이, 厥陰風木과 少陽相火도 기질적 관점에서 脾胃土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陽明·太陰·太陽·少陰에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厥陰風木과 少陽相火가 氣質의 관점의 經絡에서 中央 土位에 자리하여 土의 성질을 가지고 나머지 二陰二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상호간에 조절과 균형에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서 相火는 水火相濟의 매개체라는 의미에도 정확히 부합하고 있으며 인체의 생명활동에 있어서 조절과 균형 작용으로서의 기능도 여실히 보여주게 된다.

3) 三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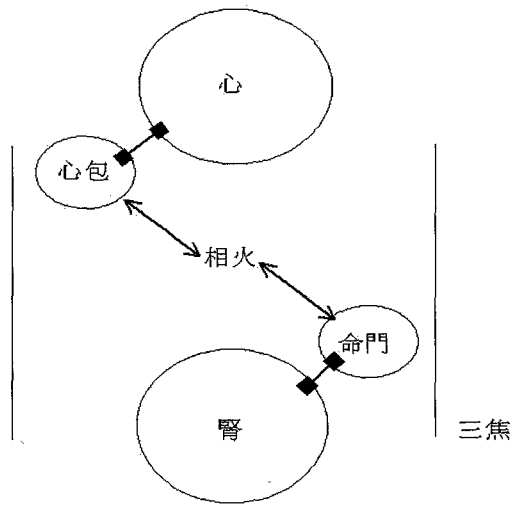
三焦의 의미에 대하여도 살펴보자면 臟腑表裏關係에 있는 心包와의 관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心包는 臟이고 三焦는 腑이므로 心包, 三焦도 역시 一般的인 臟腑의 概念에 완전히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醫學入門』 <14> <臟腑總論>에서 臟이라는 것은 精氣를 저장하고 瀉하지 않으며 腑라는 것은 化物を 傳하고 저장하지 않는다고 한 臟腑의 개념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니 心包는 精氣를 저장하고 瀉하지 않아야 하고 三焦는 化物を 傳하고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相火의 내용을 따르자면 相火는 곧 心包的 성질로서, 다시 말하자면 臟인 心包는 相火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이 臟腑中에서 臟의 기능, 즉 精氣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腑인 三焦는 出納轉輸하여 化物を 傳하는 腑의 機能을 충실히 하고 있는 바, 그 對象을 相火로 하여, 즉 相火의 通路로서 三焦를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三

焦는 문자적으로 살펴 볼 때에 焦가 갖는 의미, 다시 말해 火의 의미를 간과할 수 없는데 이는 바로 相火의 관련 속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니 臟인 心包와 臟腑表裏關係를 하면서 相火의 통로로 腑인 三焦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이제까지 心包, 命門, 三焦에 관해 考察한 내용을 정리하면, 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腎의 水성질과 연계될 수 있는 心包와 腎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心의 火성질과 연계될 수 있는 命門은 心腎相交의 매개체가 되는 相火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相火는 三焦라는 통로를 통해 上下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命門과 心包는 相火의 위치에 따른 이름으로 그 내용은 相火이며, 心包는 臟으로써 腑인 三焦와 臟腑表裏關係를 이루고, 이를 통해 三者는 서로의 關係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앞서 고찰한 문헌적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命門은 처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의미에 대한 醫家들의 견해가 다양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水火相濟에 있어서 腎을 바탕으로 하는 매개체로서 命門을 생각하여 본다면, 命門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腎間動氣說이나, 左腎右命門說이나, 兩腎이 모두 命門이라는 설이 모두 腎이 心과 水火相濟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이견으로 보이더라도 그 내용 다르지 않다.

心包의 기능에 대한 의견 또한 많으나 心包가 水火相濟에 있어서 心을 바탕으로 水의 성질을 갖는 매개체다라는 견해로 본다면 心包가 膻中이라는 설이나, 心包가 心의 裹膜이라는 설이나, 心包가 子戶다라는 설이 다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命門에 관한 설중 李圭峻의 주장과 李挺의 『醫學入門』 <臟腑論>에서 말한 命門이 곧 心包란 것도 이해된다.

三焦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焦'에 역점을 두어 氣化의 장소라고 설명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如霧 如溝 如瀆'이라 하여

60) 李挺 『醫學入門』 “臟者藏平也 藏諸神而精氣流通也 腑者 府庫也 出納轉輸之謂也 臟腑 兄弟也 同氣而異形耳 五臟者 藏精氣而不瀉 故 滿而不能實 六腑者 傳化物而不藏 故 實而不能滿” 『高麗醫學』, 서울 1978년, 79p.

水液대사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相火와 三焦의 관계를 통해 보자면, 相火와 三焦는 臟腑表裏對待關係를 형성하여 水火相濟의 相火가 전신을 돌아다님에 그 통로를 三焦로 삼고 있는 것이며, 相火가 上焦, 中焦, 下焦에서 氣化작용을 이루어내면 그 결과로 三焦의 水液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같은 내용이 된다.

相火의 機能을 살펴보자면 相火는 水火相濟의 매개체가 된다. 다시 말해 心和 腎은 水火相濟의 體가 되는 것이고, 相火는 心腎의 水火相濟를 위한 用이 되는 것이다. 또한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心臟君火의 상대인 相火도 이러한 개념으로 살펴보면 그 실체가 쉽게 상정된다.

이제까지 臟腑論과 經絡論의 相關關係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心包, 三焦, 命門 三者와 相火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저자는 도리어 心包, 命門, 三焦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臟腑論과 經絡論의 형식을 이용하여 相互關係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三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본 논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心包, 命門, 三焦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있다면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한 인체의 구조 및 생리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2005)에 의해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黃帝內經素問. 臺聯國風出版社, 1977. 黃帝內經靈樞. 臺聯國風出版社, 1977.
2. 難經. 人民衛生出版社, 1991.
3. 王叔和 著. 脈經. 東洋醫學研究會. 東洋醫學善本叢書 第7冊, 1981.
4. 楊上善 著. 黃帝內經太素. 東洋醫學善本叢書, 1981.
5. 王好古 著. 此事難知. 中國醫學大系 卷13 中. 驪江出版社, 1995.
6. 劉河間 著. 素問玄機原病式. 中國醫學大系 卷24 中. 驪江出版社, 1995.
7. 張元素 著. 病機氣宜保命集. 中國醫學大系 卷13 中. 驪江出版社, 1995.
8. 李東垣 著. 蘭室秘藏. 中醫古籍出版社, 1987.
9. 滑壽 著. 難經本義. 中國醫學大系 卷1 中. 驪江出版社, 1995.
10. 孫一奎 著. 醫旨緒餘. 中國醫學大系 卷34 中. 驪江出版社, 1995.
11. 虞搏 著. 醫學正傳. 成輔社, 1986.
12. 李時珍 著.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91.
13. 張景岳 著. 景岳全書. 정담, 1999.
14. 李梴 編纂. 醫學入門. 高麗醫學, 1978.
15. 李中梓 著. 醫宗必讀. 書苑堂發行, 1987.
16. 趙獻可 著. 醫貫. 人民衛生出版社, 1987.
17. 陳士澤 著. 石室秘錄.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18. 唐宗海 著. 血證論. 上海人民出版社, 1996.
19. 李圭峻 著. 素問大要. 密陽琴川新刊, 1906.
20. 張元素 著. 臟腑虛實標本用藥式. 中醫古籍出版社, 1994.
21. 張景岳 著. 類經. 中國醫學大系 卷44 中. 驪江出版社, 1995.
22. 程知 著. 醫經理解.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5.
23. 華佗 著. 中藏經. 自由出版社印行, 1990.
24. 李東垣 著. 脾胃論. 中國醫學大系 卷13 中. 驪江出版社, 1995.
25. 朱丹溪 著. 格致餘論. 中國醫學大系 卷14 中. 驪江出版社, 1995.
26.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3.
27. 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 人民衛生出版社, 1986.
28. 素問學會蔚山支部 編輯. 素問學會資料集. 素問學會蔚山支部.
29. 최의경 著, 권영규, 김은하 共譯. 五運六氣學解說. 법인문화사, 1993.
30. 尹暢烈 著. 醫哲學. 大田大學校韓醫科大學原典醫史學教室.
31. 金完熙, 崔達永 共編.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91.
32. 王新華 編著. 中國歷代醫論選.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33.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人民衛生出版社, 1997.
34. 증흥묵. 명문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대 한의대연구소 논문집, 2: 1-17, 1993.
35. 김동택. 명문에 대한 문헌적 고찰. 동양의학, 2(1):11-18, 1986.
36. 정호진. 脾胃와 命門을 中心으로 한 升降의 原動力에 관한 考察, 경희대학교 碩士學位論文.
37. 노정우. 三焦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博士學位論文.
38. 김정범, 안규석. 心腎不交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동의 병리학회지 7: 101-109, 1992.